

# 이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차 상 근 의  
관망과 혼수

이슈우화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는 쥐들의 이야기가 있다. 매일 고양이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그 소리를 듣고 쉽게 도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고양이의 목에 누가 나서서 방울을 달지를 놓고는 모두 몸을 사렸다. 묘수이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들의 비겁함을 꼬집는 이야기다.

국민연금 개혁문제는 근 25년째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비유되는 핫이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그 민감한 연금개혁을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3대 국정과제로 올리며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정치적·사회적 파급력 때문에 긴가민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988년 출발한 국민연금제도는 수급자 부담률인 보험료율이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렸으나 1998년 9%까지 늘어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역대 정부는 꾸준히 연금개혁안을 논의했

다. 주된 쟁점은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올리고 연금수급시기를 더 늦춰 연금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스웨덴,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보험료율 평균은 우리나라의 두배인 18.3%이고 급여율(소득대체율)은 선진국 수준인 40% 선이다. 문재인 정부때에는 보험료율을 소폭 올리되 급여율을 좀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가 흐지부지됐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연금개혁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고갈문제는 출범때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문제가 세계 최고수준인 근래 들어서는 더욱 주목받는 이슈가 돼버렸다. 미래에 소수의 젊은이들이 다수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연금제도를 도입한 서구에서도 연금개혁은 번번이 기득권층이나 기성세대의 반대에 부딪히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다녔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정권은 예외없이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프랑스도 지금 연금개혁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부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고 연금납부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교통, 정유, 에너지, 교원 부문 등 8개 주요 노동조합은 12년만에 연합전선을 구축해 지난 19일 1차 파업을 벌였고 오는 31일 2차 파업을 준비 중이다. 19일 파업에는 전국에서 112만명이 참가했고 지하철과 주유소 등 사회기간망이 마비됐다. 적잖은 국민들과 야당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결과를 내놓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산정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금체계 재구조화 방안을 수립한다. 정부산하기관들과 전문가집단은 현 구조로는 재정소진 시점이 2057년에서 1~3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 예측을 이미 내놓았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의 사회적 공론화는 발등의 불이 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시점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엇갈릴 수도 있는 연금개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때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처럼 연금개혁에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때는 '동큰 한 수'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본시장부장 skc8472@metroseoul.co.kr

## 아끼지 않는 교육



기지 수첩  
신 하 은  
(정책사회부)

교육부는 올해 최초로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장에서는 값싼 교육을 공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이 교육보다는 '가성비' 인재양성 계획의 일부가 됐다는 지적이다. 증액분 중 특히 많이 늘어난 예산 역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원 예산이다.

최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값싼 교육을 고민하는 교육부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는 교육부가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경쟁교육 과열과 함께 학교 서열화의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교육시장에서

공교육의 전폭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공교육의 실효성을 잃게 될 경우, 지금처럼 사립초, 국제중, 특목·자사과의 선호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진다. 2022학년도 서울 지역 사립초 평균 경쟁률은 11.7대 1로 전년 6.8대 1 대비 크게 상승했고, 전국 주요 10개 자사고 역시 지난해에 최근 5년 사이 최고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쟁력 있는 학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즉, 공교육의 미흡함을 가정이 개별적으로 충족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코로나19에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참여율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67.1%였던 사교육 참여율은 2021년에 75.5%로 급증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도 2016년 18조606억원이었던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3조415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소득 구간별 차이로, 2021년 월소득 300만원 정도의 저소득 가구 평균 사교육비는 14만8000원, 700만원 가량의 고소득 가구는 54만원으로 약 40만원 가량의 큰 차이를 보였다. 통계청의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가구소득 800만원 이상인 집단은 200만원 이하 집단보다 사교육 참여율이 1.85배 높고, 사교육비 지출도 5.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공교육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아낀다면 그 몫은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떠넘겨진다. '계층 이동 사다리'로 불리던 교육은 어느새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변질됐다. 경쟁교육 과열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지금, 가정이 아닌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gothe@

오늘의 운세 1월 27일 (음 1월 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앞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48년생 북쪽으로 길을 나서면 행운이 있다. 60년생 지는 태양은 막을 도리가 없다. 72년생 가정이 화목해야 다른 일도 잘 풀린다. 84년생 마음이 흐리니 꽃구경이 무슨 소용 이라만.



37년생 바쁜 가운데 게임을 배워보니 즐거움이 배가된다. 49년생 상대를 칭찬하면 2배로 돌아온다. 61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73년생 힘들어도 해오던 일을 계속 추진. 85년생 겸손이 미덕이니 양보.



38년생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50년생 친구의 앞날에 영향을 주는 충고를 한다. 62년생 결과만 험기라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74년생 동료들과 등산계획을 세워본다. 86년생 초대 받아 기쁘나 이로운 일은 없다.



39년생 빗방울이 떨어지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 51년생 학수고대하던 문서에 도장을 찍는 날. 63년생 소피 호랑이띠와의 거리가 유익. 75년생 공부와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 87년생 직장에서 업무가 홍일점(紅一點)이다.



40년생 모처럼 지인들과 가차로 여행을 가본다. 52년생 시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64년생 남이 던져주는 희망을 바라지 마라. 76년생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건강에 신경 써보자. 88년생 인내의 끝이 보이니 조금만 더 노력.



41년생 굴이 깊을수록 산도 높은 법이니 힘을 내서 전진. 53년생 남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시. 65년생 핑크보라색이 행운을 준다. 77년생 어려움이 곳곳에 있으니 심호흡을 하고 길을 나서자. 89년생 하던 일이 뜻대로 되니 안심.



42년생 서두르지 말고 자손과 상의해서 일을 처리. 54년생 머리만 믿고 있다면 큰 낭패. 66년생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 78년생 눈치 빠른 행동이 상사의 눈에 든다. 90년생 즐거운 일이 넘쳐나 허우적대는 하루이다.



43년생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한 운세. 55년생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린다. 67년생 물 흐르는 대로 일이 진행된다. 79년생 연인의 연락을 받지만 반감지 않는다. 91년생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자신의 허물만 드러난다.



44년생 남 뒷만 하지 말고 서류를 잘 살펴라. 56년생 새로운 계약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68년생 황제은은 화중지병(花中之餅)이니 성실하게. 80년생 명석이 깔려도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92년생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법.



45년생 자식의 형편을 살피고 도움을 줘라. 57년생 발로 뛰는 일을 찾아보자. 69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쁘다. 81년생 선물리 시작하지 말고 많은 준비를 하라. 93년생 집안 농사짓는 땅에서 풍년이 되길 기원 드린다.



46년생 사람 만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면 성과가. 58년생 일이 어려워도 풀어나갈 운. 70년생 돈을 벌어 집이 생기니 이따나 좋을까. 82년생 어찌 결정할 일을 오 늘 반복할 일이 있다. 94년생 좋은 일이 뜻대로 되어 가슴 벅차다.



47년생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날. 59년생 반대에도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71년생 밑 빠진 독에 물붓기하고 있는 상태. 83년생 기도받던대로 이루어지니 부모님께 감사. 95년생 문전옥답(門前玉壺)도 가꾸어 놓아야 기름지다.



## 김상회의四季 사주학의 풀이 ⑧

소천素天의 금기金氣가 지나가는 항구 저 묘鼻 필뿔의 네 별자리는 24방위에서 을乙과 경庚이 해당하므로 을과경이 합하여 금금이되고 을과경의 해에는 금기金氣가 먼저 그해의 운기를 주관한다. 현천玄天의 수기水氣가 지나가는 장張 익龕 누屨 위뿔의 네 별자리는 24방위에서 병丙과 신辛이 해당하므로 병과신이 합하여 수수가되고 병과신의 해에는 수기水氣가 먼저 생겨 그해의 운기를 주관한다. 자편진전에서 논하길, 천간의 합수와 화화는 음陰과 양陽이 만나 형성된다.

하도河圖의 수數는 1,2,3,4,5를 6,7,8,9,10과 배합하여 선천先天의 도도를 형성한다. 태음太陰의 수수에서 시작하여 중기中氣의 토土에서 끝이 나는데 이 과정이 오행五行의 기氣가 상생相生하는 순서가 된다. 오행이 있기 전에 음양陰陽과 노소老少가 있었고 그 후에 기氣가 충충하여 토土를 생하니 마침내 오행五行이 된 것이다. 이상이 십천간十干이 합화合化하는 의미이다. 십천간이 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십천간이 배합하면 반드시 그 행배를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일주甲日主가 신금辛金 정관正官을 쓰는데 병화丙火가 투출투出하여 신금과 합하면 정관은 정관의 구실을 못한다. 갑일주가 계수癸水 인수印綬를 쓰는데 무토戊土가 투출하여 계수를 합하면 인수는 인수구실을 못한다.

갑일주가 기토己土 재성財星을 쓰는데 다른 곳에 갑甲이 또 있어 기己와 합하면 재성은 구실을 못한다. 천간합인 것 같아도 합이 되지 못하니 먼저 가까이 붙어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봐야 한다. 사람에게 비유하면 서로 좋아해도 중간에 방해자가 있으면 맺어지기 힘든 것과 같다. 즉 갑甲과 기己가 합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경庚이 있으면 갑목은 경금을 뛰어넘어 기토와 합을 할 수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6 | 10,000원

2		3		1	
		1			2
8		9	3		
			8	6	
		6			5
4	8		5		
8		1			
5				7	
	2	3	8		1

		7		4		1		
				9				
8			5		1			6
		3				7		
5	6						9	2
		9				3		
9			2		4			7
				1				
	5		8		4			

### 정답

1	6	7	9	2	8	5	3	9
5	8	2	3	9	6	7	1	5
9	3	5	8	7	1	2	6	8
6	5	1	2	9	7	8	9	7
5	7	2	8	6	9	1	5	2
2	9	8	7	1	5	2	9	6
7	2	5	6	2	9	9	8	1
2	9	9	1	8	2	6	7	5
8	1	6	9	5	7	9	2	3

1	2	7	6	8	5	9	2	9
8	9	6	9	1	2	2	5	7
2	5	7	9	2	8	1	6	6
9	9	5	8	2	1	6	7	2
2	6	8	5	2	7	1	9	9
7	1	2	9	9	6	5	8	2
9	2	2	1	5	9	7	6	8
5	7	9	2	6	8	9	2	1
6	8	1	2	7	9	2	9	5

고난이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15호  
일간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1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